



Original Article

Factors Explaining Mothers' Breastfeeding Satisfaction

Kim, Sun Hee

Part-time Lecturer, Division of Nursing Science, Ewha Womans University

어머니의 모유수유 만족감에 미치는 영향 요인

김 선 희

이화여자대학교 간호과학부 시간강사

Abstract

Purpose: This study was done to investigate the level of breastfeeding satisfaction, the relationship among knowledge about breastfeeding, attitude toward breastfeeding, self-efficacy of breastfeeding, intention of breastfeeding, and perceived social encouragement of breastfeeding and the factors influencing breastfeeding satisfaction in mothers 3~6 months after birth. **Methods:** For this descriptive research, 209 mothers who had been breastfeeding their babies agreed to participate in this study. Data on mother's satisfaction, knowledge, attitude, self-efficacy, intention, and perceived social encouragement regarding breastfeeding were collected by closed-ended questionnaires on September 14, 2007 at a contest for healthy breast-fed babies. **Results:** The major findings of this study were as follows: First, there were significant differences in the breastfeeding satisfaction level according to planned length of breastfeeding ($F=10.43, p<.001$). Second, there was a significant relationship between breastfeeding satisfaction and knowledge about breastfeeding ($r=.37, p<.001$), attitude toward breastfeeding ($r=.62, p<.001$), self-efficacy of breastfeeding ($r=.66, p<.001$), intention of breastfeeding ($r=.40, p<.001$), and perceived social encouragement of breastfeeding ($r=.32, p<.001$). Finally, the strongest factor affecting mothers' breastfeeding satisfaction was attitude toward breastfeeding

($\beta=.38$). Other factors included self-efficacy of breastfeeding ($\beta=.36$), knowledge about breastfeeding ($\beta=.14$), perceived social encouragement of breastfeeding ($\beta=.10$), and planned length of breastfeeding ($\beta=.10$). **Conclusion:** This study suggests that nurses should help mothers improve breastfeeding satisfaction through promotion of knowledge about, attitudes toward, and self-efficacy of breastfeeding.

Key Words : Attitude, Breastfeeding, Knowledge, Personal satisfaction, Self efficacy

서 론

1. 연구의 필요성

성공적인 모유수유 경험은 어머니와 아기의 협동적 노력을 통해 얻을 수 있으며, 모아 각각의 신체·심리적인 요구가 충족되었는지에 대한 인지로서 어머니와 아기 측 모두의 만족을 포함한다(Leff, Gagne, & Jefferis, 1994). 이러한 모유수유 경험으로 얻을 수 있는 만족은 영유아와 어머니의 건강 향상, 어머니와 아기의 유대감 형성 및 강화, 심리적 안정과 즐거움, 어

주요어 : 만족감, 모유수유, 자기효능감, 지식, 태도

Address reprint requests to : Kim, Sun Hee, Division of Nursing Science, Ewha Womans University, 11-1 Daehyun-dong, Seodaemun-gu, Seoul 120-750, Korea. Tel: 82-2-3277-2873, Fax: 82-2-3277-2850, E-mail: carpesun@hanmail.net

투고일 : 2009년 8월 11일 1차심사완료일 : 2009년 9월 7일 게재확정일 : 2009년 10월 27일

머니로서의 정체성 형성 등이 포함되며 (Kim & Yang, 1997; Leff et al., 1994; Riordan, 2005), 모유수유를 통해 얻는 만족감은 모유수유를 지속하게 한다 (Cernadas, Noceda, Barrera, Martinez, & Garsd, 2003; Cooke, Sheehan, & Schmied, 2003; Lee, Chung, Ahn, Moon, & Park, 2003). 또한 만족스러운 모유수유 경험은 다음 출산 시의 모유수유 실천에도 영향을 미친다 (Kronborg & Vaeth, 2004; Yeo, 2005).

반면 모유수유를 하는 어머니들은 일상생활에서의 제약과 불편함, 신체상의 변화에 대한 걱정, 주변 사람들의 모유수유에 대한 부정적인 시각과 만류로 인해 갈등을 겪거나 수치심을 느끼는 등 부정적인 측면도 동시에 겪는다. 그러므로 모유수유 하는 동안 어머니들이 겪는 이 두 가지 측면에서의 균형이 모유수유 경험의 질을 좌우하게 된다 (Huggins & Ziedrich, 2007).

우리나라의 완전 모유수유율은 출산 후 3개월에 46.7%에서 4개월에는 38.8%로 떨어지고, 6개월에는 37.4%로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나 모유수유 권위자들이 권장하는 최소 6개월 이전에 많이 중단하고 있다 (Ministry of Health and Welfare, 2006). 이는 어머니와 아기의 신체적, 심리적인 모유수유 장애요인 때문이며 모유수유를 하면서 겪는 어려움이 만족감을 능가하기 때문이다 (Huggins & Ziedrich, 2007; Lee, 2003). 그러므로 모유수유를 증진시키기 위해서는 모유수유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3개월 이상 성공적으로 모유수유를 하고 있는 어머니들의 특성을 파악하고 그 관련요인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

모유수유에 대한 지금까지의 연구를 보면 주로 모유수유 실천 및 기간에 대한 연구가 이루어졌는데, 모유수유 기간이 길수록 모유수유 만족감이 높다. 그러나 모유수유 기간과 모유수유 만족감간의 상관관계가 약하기 때문에 모유수유 기간이 모유수유 만족감이라는 경험을 충분히 나타낸다고는 할 수 없다 (Leff, Jefferis, & Gagne, 1994). 그러므로 어머니들이 즐겁고 보람된 모유수유 경험을 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서는 만족감이라는 경험의 질을 평가하고, 모유수유 기간보다는 모유수유 만족감에 중점을 두는 중재방법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

또한 지금까지의 연구가 주로 산후 3개월까지의 어머니를 대상으로 이루어졌으며, 이 시기 이후에도 모유수유를 지속하는 어머니를 대상으로 하는 연구는 부족하다. 또한 출산 6개월 이후에는 이유식을 병행하게 되므로 전적으로 모유만을 주어야 하는 시기와는 다른 양상의 경험이 나타날 수 있다. 그러므로 출산 후 3개월에서 6개월까지 완전 모유수유를 하고 있는 어머니들의 경험의 질인 모유수유 만족감을 파악하고 이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확인하는 것은 모유수유 증진을 위한 중재 개발에 기여할 수 있다.

모유수유 만족감에 대한 연구는 부족하지만 모유수유 경험에 대한 질적 연구와 지속적인 실천에 대한 선행연구를 고찰한 결과, 지속적인 모유수유 실천이 개인의 인지적, 심리적 요인과 사회적인 요인에 영향을 받는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Dennis, 2002). 이에 본 연구는 모유수유 실천에 영향을 미치는 개인의 인지적 요인으로서 모유수유 관련 지식, 심리적 요인으로서 모유수유에 대한 태도, 모유수유 자기효능감, 모유수유 의지, 그리고 사회적 요인으로 모유수유에 대한 사회적 권장 인식이 어머니의 모유수유 만족감에 미치는 영향을 규명하고자 한다.

2. 연구목적

본 연구는 출산 후 3개월부터 6개월까지 완전 모유수유를 하는 어머니의 모유수유 만족감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파악하고자 하며, 구체적인 목적은 다음과 같다.

- 완전 모유수유를 하는 어머니의 일반적 특성을 확인한다.
- 완전 모유수유를 하는 어머니의 모유수유 만족감과 모유수유 관련 지식, 모유수유에 대한 태도, 모유수유 자기효능감, 모유수유 의지, 모유수유에 대한 사회적 권장 인식을 정도를 파악한다.
- 완전 모유수유 하는 어머니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모유수유 만족감 정도의 차이를 확인한다.
- 모유수유 관련 지식, 모유수유에 대한 태도, 모유수유 자기효능감, 모유수유 의지, 모유수유에 대한 사회적 권장 인식 및 모유수유 만족감과의 상관관계를 확인한다.
- 모유수유 관련 지식, 모유수유에 대한 태도, 모유수유 자기효능감, 모유수유 의지, 모유수유에 대한 사회적 권장 인식 및 일반적 특성이 모유수유 만족감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한다.

연구방법

1. 연구설계

본 연구는 출산 후 3개월부터 6개월까지 완전 모유수유를 하고 있는 어머니의 모유수유 만족감의 영향요인을 규명하기 위해 시도된 서술적 조사연구이다.

2. 연구대상

본 연구의 대상은 서울, 경기도 지역에 거주하며 출산 후 3개월에서 6개월의 완전 모유수유를 하고 있는 어머니로서 대한간호협회에서 실시한 '2007 건강한 모유수유아 선발대회'에 참석한 209명을 대상으로 하였다.

3. 연구도구

1) 모유수유 만족감

모유수유 만족감은 Leff 등 (1994)이 개발한 모유수유 평가척도 (maternal breastfeeding evaluation scale)를 Yoon (2005)이 국문으로 번역하여 수정·보완한 도구를 사용하였다. 이 도구는 전반적인 모유수유 경험의 질에 대한 산모의 지각과 산모가 지각한 아이의 만족정도를 포함하며, 산모의 즐거움/바람직한 모성역할의 획득 (14문항), 아이의 만족/성장 (8문항), 일상생활/신체상 (8문항)으로 총 30문항의 긍정적인 문항과 부정적인 문항으로 구성되었다. 1점 (전혀 그렇지 않다)에서 5점 (매우 그렇다)의 5점 Likert 척도로 총점의 범위는 30~150점이며, 점수가 높을수록 모유수유에 대한 만족감 정도가 높음을 의미한다. 개발 당시 이 도구의 신뢰도 Cronbach's $\alpha = .80$ 이었고, Yoon (2005)의 연구에서 Cronbach's $\alpha = .88$ 이었으며, 본 연구에서는 .84이었다.

2) 모유수유 관련 지식

모유수유 관련 지식은 Lee (1997)가 개발하고 Yun (2003)이 수정·보완한 도구를 사용하였다. 이 도구는 모유가 영아에게 이로운 점 (5문항), 산모에게 이로운 점 (4문항), 모유수유 방법과 문제에 부딪혔을 때 대처 방법 (11문항)에 대한 총 20문항으로 구성되었다. 정답에 1점, 오답과 모름에 0점을 주어 총점의 범위는 0~20점이며, 점수가 높을수록 모유수유에 대한 지식이 높음을 의미한다. 개발당시 이 도구의 신뢰도 Cronbach's $\alpha = .83$ 이었고, 본 연구에서 Cronbach's $\alpha = .64$ 였다.

3) 모유수유에 대한 태도

모유수유에 대한 태도는 Jeong (1997)이 개발한 도구를 사용하였다. 모유수유에 대한 태도는 인지적 영역 (7문항), 행동적 영역 (6문항), 감정적 영역 (7문항)으로 총 20문항으로 구성되었다. 1점 (전혀 그렇지 않다)에서 5점 (매우 그렇다)의 5점 Likert 척도로 총점의 범위는 20~100점이며, 점

수가 높을수록 모유수유에 대해 긍정적인 태도를 가졌음을 의미한다. 개발 당시 도구의 신뢰도 Cronbach's $\alpha = .78$ 이었고, 본 연구에서 Cronbach's $\alpha = .77$ 이었다.

4) 모유수유 자기효능감

모유수유 자기효능감은 원래 Dennis와 Faux (1999)가 개발한 33문항의 모유수유 자기효능감 척도를 Yoon (2005)이 국문으로 번역하여 수정·보완한 도구의 문항 중에서 Dennis (2003)의 모유수유 자기효능감 도구 축소판 (breastfeeding self-efficacy scale: short form)의 14문항만을 사용하였다. 모유수유 자기효능감 축소판 도구는 어머니의 모유수유 기술과 성공적인 모유수유 경험과 관련된 산모의 태도나 신념에 대한 내적 사고의 1개 범주로 구성되었다. 1점 (전혀 자신이 없다)에서 5점 (항상 자신이 있다)의 5점 Likert 척도로 총점의 범위는 14~70점이며, 점수가 높을수록 모유수유 자기효능감이 높음을 의미한다. 개발당시 도구의 내적 일관성 신뢰도 Cronbach's $\alpha = .94$ 이었고, Yoon (2005)의 연구와 본 연구에서도 모두 Cronbach's $\alpha = .94$ 였다.

5) 모유수유 의지

모유수유 의지는 Kim과 Nam (1997)에 의해 개발된 도구를 연구자가 수정·보완하여 사용하였다. 모유수유 의지는 분만 후 12개월 이상 모유수유를 하고자 하는 의지를 말하는 것으로 개발 당시에는 분만 후 병원에 입원해 있는 산모를 대상으로 6주까지를 모유수유 의지로 보았기 때문에 본 연구에서는 미국 소아과 학회에서 권장하는 12개월까지로 모유수유 계획을 수정하였으며, 총 4문항으로 구성되었다. 1점 (전혀 아니다)에서 7점 (매우 그렇다)의 7점 Likert 척도로 총점의 범위는 4~28점이며, 점수가 높을수록 모유수유 행동에 대한 의지가 높음을 의미한다. 개발당시 도구의 신뢰도 Cronbach's $\alpha = .97$ 이었고, 본 연구에서 Cronbach's $\alpha = .96$ 이었다.

6) 모유수유에 대한 사회적 권장 인식

Janke (1994)가 개발한 모유수유 장애 예측 도구 중에 사회적 지지와 전문가 지지 요인을 참고로 하여 연구자가 국문으로 번역 및 수정·보완하여 사용하였다. 모유수유에 대한 사회적 권장 인식 도구는 모유수유 하는 어머니가 인식하는 모유수유 권장 정도를 측정하는 것으로 남편, 친척, 친구와 같은 비전문가의 권장 (5문항)과 간호사, 산부인과와 소아과 의사와 같은 건강 전문가의 권장 (3문항)으로 총 8문항으

로 구성되었다. 1점 (절대 모유수유 하지 말아야 한다)에서 7점 (반드시 모유수유 해야 한다)의 7점 Likert 척도로 총점의 범위는 8~56점이며, 본 연구의 Cronbach's $\alpha = .83$ 이었다.

4. 자료수집

자료수집일은 2007년 9월 14일이었고, 서울시 간호사회에 사전에 연구목적과 대상에 대해 설명한 후 조사를 승인받았으며, 대한간호협회에서 주최하는 '2007 건강한 모유수유아 선발대회' 예선에 참여한 어머니들을 대상으로 구조화된 설문지를 사용하여 조사하였다. 선발대회 예선이 진행되는 동안 연구자와 훈련된 연구보조원 3명이 대상자에게 연구의 목적, 대상, 비밀유지, 설문작성에 소요되는 시간, 철회 가능성, 설문지의 응답 내용이 모유수유아 선발결과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음을 설명하고, 서명 동의서에 동의를 받은 213명의 대상자를 설문조사하였다. 대상자가 설문에 충실히 응답할 수 있도록 설문 조사하는 동안 원하는 경우 연구보조원이 아기를 돌봐주었다. 최종 분석에 이용한 설문지는 조사 중도에 철회하거나 응답이 미비한 4부의 자료를 제외한 209부였다. 설문조사에 대한 보답으로 조사 후 소정의 선물을 제공하였다.

5. 자료분석

수집된 자료는 SPSS/WIN 12.0 프로그램을 이용해 분석하였다.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은 실수와 백분율로 산출하였고, 모유수유 관련 지식, 모유수유에 대한 태도, 모유수유 자기효능감, 모유수유 의지, 모유수유에 대한 사회적 권장 인식, 모유수유 만족감 정도는 평균과 표준편차를 산출하였다. 일반적 특성에 따른 모유수유 만족감 정도는 t-test와 one-way ANOVA로 분석하였다. 모유수유 관련 지식, 모유수유에 대한 태도, 모유수유 자기효능감, 모유수유 의지, 모유수유에 대한 사회적 권장 인식 및 모유수유 만족감과의 상관관계는 Pearson's correlation으로 분석하였다. 또한 모유수유 관련 지식, 모유수유에 대한 태도, 모유수유 자기효능감, 모유수유 의지, 모유수유에 대한 사회적 권장 인식 및 일반적 특성이 모유수유 만족감에 미치는 영향 요인을 파악하기 위해 다중회귀분석의 입력 (enter) 방식으로 검증하였다.

연구결과

1.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대상자의 연령은 대부분 26~30세 (53.7%)와 31~35세 (37.6%)로 20대 후반에서 30대 초반이었고, 대부분 대학졸업자 (73.2%)이었으며, 가정주부 (77.9%)이었다. 거의 대부분이 핵가족 (90.4%)이었고, 가족 수입은 201~300만원이 84명 (40.2%), 200만원 이하가 51명 (24.4%), 301~400만원이 41명 (19.6%) 등의 순이었다. 자녀수는 1명인 어머니가 135명 (64.6%), 2명 이상인 어머니가 74명 (35.4%)으로 자녀가 한명인 어머니가 더 많았으며, 분만형태는 질식분만이 140명 (67.3%), 제왕절개 분만이 68명 (32.7%)으로 나타났다. 아기의 월령은 3~4개월이 36명 (17.2%), 4~5개월이 91명 (43.5%), 5~6개월이 82명 (39.2%)이었고, 남아가 124명 (59.6%)으로 여아보다 많았다. 병원에서의 수유형태는 완전 모유수유가 124명 (59.3%), 모유와 조제유의 혼합수유가 80명 (38.3%), 조제수유가 5명 (2.4%)으로 대부분이 병원에서부터 모유수유를 하였다. 모유수유 교육을 받은 어머니가 120명 (57.4%)으로 반수 이상이었고, 모유수유 결정시기는 대부분 임신 전 (86.6%)이었으며, 계획한 모유수유기간은 6~12개월이 132명 (63.2%), 12개월 초과가 74명 (35.4%)이었다 (Table 1).

2. 모유수유 관련 지식, 모유수유에 대한 태도, 모유수유 자기효능감, 모유수유 의지, 모유수유 사회적 권장 인식 및 모유수유 만족감 정도

완전 모유수유하는 어머니의 모유수유 관련 지식의 총점 평균은 15.40 ± 2.58 점이었고, 영아의 이점에 대한 지식은 평균 4.50 ± 0.88 점, 어머니의 이점에 대한 지식은 3.20 ± 0.82 점으로 영아와 어머니의 이점에 대한 지식 정도는 매우 높은 편이었고, 모유수유 방법 및 문제발생 시 대처방법에 대한 지식은 7.69 ± 1.90 점으로 높은 편이었다. 모유수유에 대한 태도의 총점 평균은 4.41 ± 0.41 점으로 인지적 (4.45 ± 0.47), 감정적 (4.17 ± 0.63), 행동적 (4.66 ± 0.37) 측면의 태도 모두 매우 긍정적이었다. 모유수유 자기효능감의 총점 평균은 61.72 ± 8.39 점이었고, 모유수유 의지의 총점 평균은 26.80 ± 2.89 점으로 높은 편이었다. 어머니가 인식하는 모유수유에 대한 사회적 권장 인식 정도는 평균 51.42 ± 5.37 점으로 주변의 가까운 사람들의 모유수유 권장에 대한 인식 정도는

Table 1. General characteristics of breastfeeding mothers (N=209)

Variables	n (%)
Age (year)*	
≤ 25	12 (5.9)
26~30	110 (53.7)
31~35	77 (37.6)
≥ 36	6 (2.9)
Education	
≤ High school graduate	45 (21.5)
College graduate	153 (73.2)
Graduate school graduate	11 (5.3)
Working state*	
Employed	46 (22.1)
Housewife	162 (77.9)
Family type	
Nuclear	189 (90.4)
Extended	20 (9.6)
Family income (10,000 won/month)	
≤ 200	51 (24.4)
201~300	84 (40.2)
301~400	41 (19.6)
≥ 401	33 (15.8)
Number of child	
1	135 (64.6)
≥ 2	74 (35.4)
Delivery type*	
Vaginal	140 (67.3)
C-section	68 (32.7)
Baby's age (month)	
3~4	36 (17.2)
4~5	91 (43.5)
5~6	82 (39.2)
Baby's gender*	
Boy	124 (59.6)
Girl	84 (40.4)
Feeding type during hospitalization	
Exclusive breast milk	124 (59.3)
Mixed milk	80 (38.3)
Exclusive formula milk	5 (2.4)
Breastfeeding education	
Had	120 (57.4)
Not had	89 (42.6)
Time of decision for breastfeeding	
Before pregnancy	181 (86.6)
After pregnancy	28 (13.4)
Planned length of breastfeeding (month)	
< 6	3 (1.4)
6~12	132 (63.2)
> 12	74 (35.4)

*Missing data were excluded.

31.87±3.89점, 건강 전문가로부터 받은 모유수유 권장에 대한 인식 정도는 19.54±2.35점이었다. 모유수유 만족감의 총점 평균은 132.65±10.20점으로 어머니의 모유수유 즐거움과 역할 획득에 대한 만족감 정도는 65.90±4.41점, 아기의 만족과 성장에 대한 만족감 정도는 36.06±3.60점, 일

상생활과 신체상에 대한 만족감 정도는 30.69±5.05점이었다 (Table 2).

Table 2. Descriptive statistics for study variables (N=209)

Variables	Subcategories	M±SD
Knowledge about BF	Total	15.40±2.58
	Benefit for baby	4.50±0.88
	Benefit for mother	3.20±0.82
	BF technique and coping method	7.69±1.90
Attitude toward BF	Total	4.41±0.41
	Cognitive	4.45±0.47
	Emotional	4.17±0.63
	Behavioral	4.66±0.37
Self-efficacy of BF	Total	61.72±8.39
Intention of BF	Total	26.80±2.89
PSE of BF	Total	51.42±5.37
	Layperson	31.87±3.89
	Healthcare professionals	19.54±2.35
BF satisfaction	Total	132.65±10.20
	Maternal enjoyment / role attainment	65.90±4.41
	Infant satisfaction / growth	36.06±3.60
	Lifestyle / maternal body image	30.69±5.05

BF=breastfeeding; PSE=perceived social encouragement.

3. 일반적 특성에 따른 모유수유 만족감 정도

완전 모유수유를 하는 어머니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모유수유 만족감 정도는 모유수유 계획 기간만이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F=10.43, p<.00$). 즉 6개월까지만 모유수유를 계획한 어머니의 모유수유 만족감 정도보다 6~12개월과 12개월 초과하여 모유수유를 하겠다고 계획한 어머니의 모유수유 만족감 정도가 유의하게 높았다 (Table 3).

4. 모유수유 관련 지식, 모유수유에 대한 태도, 모유수유 자기 효능감, 모유수유 의지, 모유수유에 대한 사회적 권장 인식 및 모유수유 만족감과 상관관계

완전 모유수유를 하고 있는 어머니의 모유수유 만족감 정도는 모유수유 관련 지식 ($r=.37, p<.00$), 모유수유에 대한 태도 ($r=.62, p<.00$), 모유수유 자기효능감 ($r=.66, p<.00$), 모유수유 의지 ($r=.40, p<.00$), 모유수유에 대한 사회적 권장 인식 정도 ($r=.32, p<.00$)와 유의한 순상관관계를 보였다 (Table 4).

Table 3. Differences in breastfeeding satisfaction by general characteristics

(N=209)

Variables	Categories	M±SD	t or F	p	Scheffe
Age (year)	≤25	135.08±10.74	0.28	.84	
	26~30	132.55±9.61			
	31~35	132.51±11.31			
	≥36	131.00±7.27			
Education	≤ High school graduate	134.35±9.76	2.41	.09	
	College graduate	131.80±10.41			
	Graduate school graduate	137.45±6.76			
Working state	Employed	132.65±9.66	0.06	.95	
	Housewife	132.54±10.32			
Family type	Nuclear	132.51±10.19	-0.62	.53	
	Extended	134.00±10.39			
Family income (10,000 won/month)	≤200	132.72±11.23	0.46	.71	
	201~300	132.11±9.78			
	301~400	132.19±11.27			
	≥401	134.48±8.22			
Number of child	1	132.71±9.17	0.11	.91	
	≥2	132.54±11.91			
Delivery type	Vaginal	132.85±9.94	0.37	.71	
	C-section	131.75±9.60			
Baby's age (month)	3~4	132.44±10.95	0.01	.99	
	4~5	132.75±9.93			
	5~6	132.63±10.28			
Baby's gender	Boy	133.32±8.10	1.02	.31	
	Girl	131.73±12.71			
Feeding type during hospitalization	Exclusive breast milk	133.60±9.63	1.66	.19	
	Mixed milk	131.07±11.04			
	Exclusive formula milk	134.80±7.82			
Breastfeeding education	Had	133.05±10.29	0.66	.51	
	Not had	132.11±10.10			
Time of decision for breastfeeding	Before pregnancy	132.26±10.50	-1.39	.16	
	After pregnancy	135.14±7.67			
Planned length of breastfeeding (month)	<6 ^a	108.00±7.00	10.43	.00	a<b, c
	6~12 ^b	133.63±8.96			
	>12 ^c	131.90±11.12			

Table 4. Relationships among the study variables

(N=209)

Variables	BF satisfaction	Knowledge about BF	Attitude toward BF	Self-efficacy of BF	Intention of BF
	r (p)	r (p)	r (p)	r (p)	r (p)
BF satisfaction	-				
Knowledge about BF	.37 (.00)				
Attitude toward BF	.62 (.00)	.17 (.01)			
Self-efficacy of BF	.66 (.00)	.34 (.00)	.45 (.00)		
Intention of BF	.40 (.00)	.15 (.03)	.29 (.00)	.41 (.00)	
PSE of BF	.32 (.00)	.10 (.15)	.24 (.00)	.27 (.00)	.22 (.00)

BF=breastfeeding; PSE=perceived social encouragement.

5. 모유수유 만족감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완전 모유수유를 하는 어머니의 모유수유 만족감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를 확인하기 위해 다중회귀분석을 사용하였다. 분석에 앞서 일반적 특성에서 모유수유 만족감 정도에 유의한 차이를 보였던 계획한 모유수유 기간을 가변수로 전환하여 분석에 포함하였다. 또한 모유수유 관련 지식, 모유수유에 대한 태도, 모유수유 자기효능감, 모유수유 의지, 모유수유에 대한 사회적 권장 인식, 계획한 모유수유 기간 및 모유수유 만족감 정도와의 상관관계를 분석한 결과 상관계수가 .66 이하로 모두 .80 미만으로 나타났고, 분산팽창인자(VIF)값이 1.57 이하로 다중공선성의 문제가 없었고, Durbin Watson값이 2.20으로 잔차의 독립성을 만족하였다.

완전 모유수유 어머니의 모유수유 만족감을 설명하는 회귀모형은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F=52.85, p<.00$), 모형의 설명력은 60.0%이었다. 어머니의 모유수유 만족감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모유수유에 대한 태도 ($\beta=.38$)로 나타났으며, 다음은 모유수유 자기효능감 ($\beta=.36$), 모유수유 관련 지식 ($\beta=.14$), 모유수유에 대한 사회적 권장 인식 ($\beta=.10$), 계획한 모유수유 기간 ($\beta=.10$) 순으로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Table 5).

논 의

모유수유를 하는 어머니는 모유수유를 하는 동안 여러 가지 만족감을 얻는 동시에 부정적인 경험도 겪게 된다. 모유수유하는 어머니가 부정적인 경험보다는 만족감을 더 많이 얻을수록 더 오랫동안 성공적으로 지속할 수 있게 되며 (Cernadas et al., 2003; Cooke et al., 2003), 다음 출산 시의 모유수유 실천 (Kronborg & Vaeth, 2004; Yeo, 2005)과

수유하는 동안의 삶의 경험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 그러므로 모유수유 만족감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확인하는 것은 모유수유를 증진시키고 효과적으로 실천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 필요할 뿐만 아니라 모유수유 하는 동안 어머니의 삶의 질을 증진시키는데 도움이 된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문헌 고찰을 통해 확인된 모유수유 관련 지식, 모유수유에 대한 태도, 모유수유 자기효능감, 모유수유 의지, 모유수유에 대한 사회적 권장 인식 및 일반적 특성이 모유수유 만족감에 영향을 미치는지를 분석하였으며, 여기에서는 주요 영향 변수로 파악된 요인들을 중심으로 논의하고자 한다.

모유수유에 대한 지식이 높은 어머니일수록 모유수유 지속 기간이 길고 (Kronborg & Vaeth, 2004), 모유수유 지속 기간이 긴 어머니는 모유수유 만족감이 높다는 연구결과들과 마찬가지로 (Cernadas et al., 2003; Cooke et al., 2003) 본 연구에서도 어머니의 모유수유 지식이 모유수유 만족감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결과를 나타내었다. 그러므로 모유수유 만족감을 증진시키기 위해서 어머니의 모유수유에 대한 지식을 향상시키는 중재방법이 필요하지만 지식 전달 내용은 지금까지와는 다른 측면으로 모유수유 만족감에 중점을 두어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모유수유의 긍정적인 경험을 더욱 강조하고, 어머니들이 모유수유하는 동안 흔히 발생할 수 있는 부정적인 경험을 긍정적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한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한편 본 연구에서 모유수유 관련 지식은 모유수유 만족감과 약한 상관관계를 나타냈고, 다른 연구에서는 어머니의 모유수유에 대한 지식과 모유수유 지속 기간 및 실천과는 상관관계가 없다는 결과도 보고되고 있다 (Ertem, Votto, & Leventhal, 2001; Lee, 2003). 따라서 추후 모유수유 관련 지식이 모유수유 만족감의 영향요인인지에 대한 연구가 반복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Table 5. Influencing factors on breastfeeding satisfaction

(N=209)

Variable	B	SE	β	t	p
Knowledge about BF	0.56	0.19	.14	3.00	.00
Attitude toward BF	9.38	1.24	.38	7.58	.00
Self-efficacy of BF	0.43	0.07	.36	6.45	.00
Intention of BF	0.25	0.18	.07	1.42	.16
PSE of BF	0.20	0.09	.10	2.23	.03
Planned length of breast feeding	8.20	3.99	.10	2.05	.04

F=52.85, p=.00, Adj. R²= .60

BF=breastfeeding; PSE=perceived social encourage; Dummy variable=planned length of breast feeding (1=above 6 months, 0=below 6 months).

본 연구에서 모유수유에 대한 태도가 모유수유 만족감의 가장 높은 영향 요인으로 나타났다. 이는 모유수유에 대한 긍정적인 태도가 산후 6개월의 모유수유 기간과 완전모유수유 실천에 강한 예측 요인이라는 연구결과와 유사하다고 할 수 있다(Cernadas et al., 2003; Scott, Binns, Oddy, & Graham, 2006). 태도의 변화는 단기간 내에 일어나기 어려우므로 긍정적인 모유수유 태도를 형성하기 위해서는 장기간의 노력이 필요하다. 그러므로 임신 전부터 출산 후 지속적으로 모유수유의 긍정적인 측면을 강조함으로써 모유수유 만족감을 높일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임신과 출산 전에 개인의 모유수유에 대한 태도를 사정할 수 있다면 모유수유 만족감을 예측할 수 있고 이를 위한 중재방안도 모색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한편 여성의 역할은 문화에 영향을 받으며 이는 모유수유에 대한 태도에도 영향을 주기 때문에 모유수유 하는 어머니의 모유수유 경험에 영향을 미친다(Riordan, 2005). 모유수유에 대한 태도를 변화시키기 위해서는 한 개인의 태도 변화만으로는 한계가 있으므로 사회 전반적인 태도 변화를 이끌어 가야 한다. 2000년 이후 우리나라는 정부뿐만 아니라 민간단체에서도 모유수유에 대한 사회적 분위기를 변화시키고자 지속적인 노력을 해오고 있다. 그 노력의 결과로 2003년부터 모유수유율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Kim, Cho, Kim, Do, & Lee, 2006; Ministry of Health and Welfare, 2006). 따라서 모유수유에 대한 긍정적인 태도를 향상 및 유지하기 위한 지속적인 사회적 노력이 필요하다.

어머니가 인식하는 사회적 권장정도가 모유수유 만족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본 연구의 결과는 어머니와 가까운 사람의 모유수유 권장이 모유수유 기간에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결과(Rempel, 2004; Swanson & Power, 2005)와 일맥상통한다고 볼 수 있다. 또한 다른 연구에서 모유수유를 하는 어머니의 주변 사람들의 적극적인 지지와 의료인들의 전문적인 중재가 모유수유를 성공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이끌며 더 오랫동안 모유수유를 실천하게 한다는 결과가 발표되고 있다(Cattaneo & Quintero-Romero, 2006; Jang, Kim, & Jeong, 2008). 특히 남편의 지지와 간호사의 지지는 모유수유를 하는 어머니들의 만족감에 가장 중요한 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남편의 적극적인 지지와 참여를 권장하고, 간호사는 효과적인 모유수유 증진 프로그램을 개발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지금까지 모유수유 증진을 위한 중재 프로그램을 살펴보면 대부분이 산전 교육 내용 전달 위주의 강의식 교육과 산후 초기의 모유수유 문제 위주의 직·간접적인

상담이었다. Hannula, Kaunonen과 Tarkka (2008)는 모유수유를 위한 전문가의 지지 중재에 대한 체계적 고찰 결과, 임신, 분만, 산후 전 기간에 걸친 중재가 단기간에 집중된 중재보다 더 효과적이며, 훈련된 전문가에 의한 다양한 교육방법과 지지가 한 가지 방법만 사용하는 중재보다 더 효과적이라고 하였다. 그러므로 간호사는 장기간동안 지속적이고 다양한 방법으로 어머니의 모유수유 만족감을 증진하기 위한 중재방법을 개발하여야 할 것이다.

Kronborg과 Vaeth (2004)는 산후 4개월 이내 어머니의 모유수유 자기효능감이 모유수유 기간을 예측하는 요인이며, Semenic, Loiselle와 Gottlieb (2008)도 어머니의 모유수유 자기효능감이 6개월 동안의 완전 모유수유를 예측한다고 보고하였다. 이는 본 연구에서 산후 3~6개월 동안 완전 모유수유 하는 어머니의 모유수유 자기효능감이 모유수유 만족감의 영향요인이라는 결과와 유사하다고 할 수 있다. 자기효능감 형성에는 대리적 경험과 성공적인 경험이 영향을 미친다(Bandura, 2008). 따라서 모유수유 하는 어머니들이 자조집단을 통해 긍정적인 모유수유 경험을 공유함으로써 모유수유 자기효능감이 증진될 수 있고, 어머니들의 성공적인 모유수유 경험은 다음번 자녀의 모유수유를 성공적으로 이끌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그러므로 어머니의 모유수유 만족감을 높이기 위한 향후 중재 연구로는 효과적인 모유수유 자기효능감 증진을 위한 프로그램 개발이 요구된다.

마지막으로 어머니의 모유수유 계획 기간이 6개월보다 길수록 모유수유 만족감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다른 많은 연구에서 모유수유 계획 기간이 실제 모유수유 지속기간과 상관관계가 있으며(Dennis, 2002; Kronborg & Vaeth, 2004; Yeo, 2005), 모유수유 계획 기간이 길수록 출산 3개월째 어머니들이 완전 모유수유를 실천한다는 연구결과와 일맥상통한다고 볼 수 있다(Lee, 2003). 한편 본 연구에서 모유수유 의지는 모유수유 만족감의 유의한 영향요인이 아닌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Kim과 Nam (1997)의 연구에서도 이와 비슷한 결과를 보고하였다. 본 연구의 모유수유 의지 평가는 12개월 이상 모유수유를 지속하겠다는 의지 정도를 나타내는 것으로서 출산 후 6~12개월과 12개월 이후의 기간 동안 모유수유를 지속하고자 하는 어머니들 사이의 만족감에는 유의한 차이가 없기 때문으로 생각된다. 그러나 본 연구의 대상자는 모두 출산 6개월 이전의 어머니로서 실제 6개월 이후의 어머니들을 대상으로 모유수유 의지가 모유수유 만족감을 예측할 수 있는지는 추후 지속적인 연구를 통해 확인되어야 한다.

이상과 같이 모유수유 하는 어머니의 모유수유 경험이 만족될 수 있도록 돕기 위해서 모유수유 문제 위주의 평가보다는 성공적으로 모유수유 하고 있는 어머니들의 모유수유 만족감을 평가해야 한다. 이를 통해 성공적으로 모유수유 하는 어머니들의 모유수유 역량을 확인할 수 있고 모유수유에 만족하지 못하는 어머니들을 위한 지지방안도 모색할 수 있다. 이에 본 연구는 3~6개월 동안 완전 모유수유 하는 어머니들의 모유수유 만족감과 영향요인을 평가함으로써 이들이 갖고 있는 강점 요인을 확인하였고 간호중재 방향을 제시하였다. 또한 지금까지 모유수유의 경험을 평가한 연구가 부족하기 때문에 본 연구가 의의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본 연구는 건강한 모유수유아 선발대회에 참여한 3~6개월의 완전 모유수유 어머니를 대상으로 하였으므로 결과를 확대해석하는데 제한이 있으며, 추후 다른 수유기간의 모유수유 만족감을 비교 평가할 필요가 있다.

결론 및 제언

본 연구는 3~6개월 동안 완전 모유수유 하는 어머니의 모유수유 만족감에 미치는 영향 요인을 규명하고자 2007년 서울, 경기지역의 건강한 모유수유아 선발대회에 참여한 어머니 209명을 대상으로 실시된 서술적 조사연구이다. 본 연구의 주요변수로 일반적 특성(계획한 모유수유 기간), 개인의 인지적 요인(모유수유 관련 지식), 심리적 요인(모유수유에 대한 태도, 모유수유 자기효능감, 모유수유 의지), 사회적 요인(모유수유에 대한 사회적 권장 인식)을 포함하여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 모유수유를 하려고 하는 어머니들의 모유수유 만족감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가장 영향이 높았던 긍정적인 모유수유 태도와 모유수유 자기효능감을 높일 수 있어야 한다. 또한 모유수유 관련 지식을 높이고 주변 사람들과 의료인의 적극적인 권장이 지속되어야 하며, 장기간의 모유수유 기간을 계획하도록 지지하여야 한다. 본 연구를 통해 밝혀진 모유수유 만족감에 미치는 영향 요인들을 고려하여 임상과 연구에 활용한다면 어머니들의 모유수유 만족감을 향상시키고 모유수유 하는 기간 동안의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도록 돕는데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사료된다.

이상의 결과를 바탕으로 임상과 연구 측면에서 다음과 같이 제언을 하고자 한다. 간호사는 어머니들이 긍정적인 모유수유 경험을 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서 모유수유 만족감을 평가하고 이에 따른 간호중재 방안을 모색할 것을 제언한다.

또한 어머니의 모유수유 만족감을 높이기 위한 모유수유 자기효능감 증진 프로그램을 개발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 개인의 내적 성공 경험을 부각시키고 타인의 성공 경험을 소개함으로써 모유수유의 긍정적인 경험을 강조하고, 모유수유의 부정적인 경험을 긍정적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내용이 요구된다.

연구에서는 모유수유 만족감에 대한 연구가 반복적으로 이루어져야 하는데 특히 출산 후 초기 3개월과 6개월 이후의 어머니들을 대상으로 모유수유 관련 지식, 모유수유 의지를 포함한 연구가 반복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References

- Bandura, A. (2008). *Self-efficacy in changing societies*.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 Cattaneo, A., & Quintero-Romero, S. (2006). Protection, promotion, and support of breastfeeding in low-income countries. *Semin Fetal Neonatal Med, 11*(1), 48-53.
- Cernades, J. M., Noceda, G., Barrera, L., Martinez, A. M., & Garsd, A. (2003). Maternal and perinatal factors influencing the duration of exclusive breastfeeding during the first 6 months of life. *J Hum Lact, 19*(2), 136-144.
- Cooke, M., Sheehan, A., & Schmied, V. (2003). A description of the relationship between breastfeeding experiences, breastfeeding satisfaction, and weaning in the first 3 months after birth. *J Hum Lact, 19*(2), 145-156.
- Dennis, C. L. (2002). Breastfeeding initiation and duration: A 1990-2000 literature review. *J Obstet Gynecol Neonatal Nurs, 31*(1), 12-32.
- Dennis, C. L. (2003). The breastfeeding self-efficacy scale: Psychometric assessment of the short form. *J Obstet Gynecol Neonatal Nurs, 32*(6), 734-744.
- Dennis, C. L., & Faux, S. (1999). Development and psychometric testing of the breastfeeding self-efficacy scale. *Res Nurs Health, 22*(5), 399-409.
- Ertem, I. O., Votto, N., & Leventhal, J. M. (2001). The timing and predictors of the early termination of breastfeeding. *Pediatrics, 107*(3), 543-548.
- Hannula, L., Kaunonen, M., & Tarkka, M. T. (2008). A systematic review of professional support interventions for breastfeeding. *J Clin Nurs, 17*(9), 1132-1143.
- Huggins, K., & Ziedrich, L. (2007). *The nursing mother's guide to weaning*. Boston, MA: The Harvard Common Press.
- Jang, G. J., Kim, S. H., & Jeong, K. S. (2008). Effect of postpartum breast-feeding support by nurse on the breast-feeding prevalence. *J Korean Acad Nurs, 38*(1), 172-179.
- Janke, J. R. (1994). Development of the breast-feeding attrition prediction tool. *Nurs Res, 43*(2), 100-104.
- Jeong, G. H. (1997). *Effect of the nursing intervention program on promoting the breastfeeding practice in primipara*. Unpublished doctoral dissertation, Ewha Womans University, Seoul.
- Kim, H. S., & Nam, E. S. (1997). Prediction of breastfeeding in-

- tentions and behaviors: An application of the theory of planned behavior. *J Korean Acad Nurs*, 27(4), 796-806.
- Kim, S. G., Cho, A. J., Kim, Y. K., Do, S. R., & Lee, G. W. (2006). *The survey on the national fertility, family health and welfare in Korea*. Seoul: Korea Institute for Health and Social Affairs.
- Kim, S. J., & Yang, S. J. (1997). A study of primiparous women's breastfeeding experience. *J Korean Acad Nurs*, 27(3), 477-488.
- Kronborg, H., & Vaeth, M. (2004). The influence of psychosocial factors on the duration of breastfeeding. *Scand J Public Health*, 32(3), 210-216.
- Lee, S. O. (2003). A study about breastfeeding knowledge, attitude, and problem of breastfeeding in early postpartum period and breastfeeding practice. *Korean J Women Health Nurs*, 9(2), 179-188.
- Lee, S. O., Chung, E. S., Ahn, S. H., Moon, G. N., & Park, N. H. (2003). A study of predictors of breastfeeding. *Korean J Child Health Nurs*, 9(4), 368-375.
- Lee, E. J. (1997). *The effect of prenatal breastfeeding education on breastfeeding practice and retention of knowledge*. Unpublished master's thesis, Keimyung University, Daegu.
- Leff, E. W., Gagne, M. P., & Jefferis, S. C. (1994). Maternal perceptions of successful breastfeeding. *J Hum Lac*, 10(2), 99-104.
- Leff, E. W., Jefferis, S. C., & Gagne, M. P. (1994). The development of the maternal breastfeeding evaluation scale. *J Hum Lac*, 10(2), 105-111.
- Ministry of Health and Welfare (2006, July). *2005 Korean national health and nutrition survey: Nutrition survey*. Retrieved October 12, 2007, from http://www.mw.go.kr/front/al/sal03011s.jsp?PAR_MENU_ID=04&MENU_ID=0403
- Rempel, L. A. (2004). Factors influencing the breastfeeding decisions of long-term breastfeeders. *J Hum Lac*, 20(3), 306-318.
- Riordan, J. M. (2005). *Breastfeeding and human lactation* (3rd ed.). Sudbury MA: Jones and Bartlett Publishers.
- Scott, J. A., Binns, C. W., Oddy, W. H., & Graham, K. I. (2006). Predictors of breastfeeding duration: Evidence from a cohort study. *Pediatrics*, 117(4), e646-655.
- Semenic, S., Loiselle, C., & Gottlieb, L. (2008). Predictors of the duration of exclusive breastfeeding among first-time mothers. *Res Nurs Health*, 31(5), 428-441.
- Swanson, V., & Power, K. G. (2005). Initiation and continuation of breastfeeding: Theory of planned behaviour. *J Adv Nurs*, 50(3), 272-282.
- Yeo, J. H. (2005). Influencing factors in breast feeding duration. *Korean J Women Health Nurs*, 11(2), 142-147.
- Yoon, J. W. (2005). *The development and evaluation of the breastfeeding self-efficacy program for working mothers*. Unpublished doctoral dissertation, Korea University, Seoul.
- Yun, S. E. (2003). *Effect of the breastfeeding knowledge, method, and feeding rate in primipara about the education of breastfeeding according to the stage of the prenatal and postnatal period*. Unpublished master's thesis, Kongju National University, Gongju.